

제주해녀의 자아인식,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인식에 대한 연구

유원희* · 서세진** · 최병길***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A Study of JejuHaenyeo’s (Women Diver) Awareness on Self, Community and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CH) Designation

You, Won-Hee* · Seo, Se-Jin** · Choi, Byung-Kil***

*Dep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ourism Policy Divis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pt. of Tourism Manage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JejuHaenyeo(women diver) culture has been designat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ICH) in 2016. However, the number of new Haenyeo is decreasing due to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of Haenyeo job, and the aging factor of Haenyeo is threatening the cultural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The study aims to analyze JejuHaenyeo’s awareness on self, community and UNESCO ICH designation. The study further aims to check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Haenyeo’s self-awareness per age group to conclude an effective strategy for permanence of Haenyeo culture. 228 JejuHaenyeo were interviewed at “The 10th JejuHaenyeo World Festival” around the Jeju Haenyeo Museum in Gujwa-eup, Jeju-si. The test result shows the difference per age group on awareness on self and UNESCO ICH designation status. The younger the generation of Haenyeo it gets, the awareness on self and UNESCO ICH designation status of Haenyeo gets lowerer. Without an immediate improvement to supplement JejuHaenyeo’s awareness on self and UNESCO ICH designation status,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of JejuHaenyeo culture may not be an easy task in the future.

Key words: Community Awareness, Jeju Haenyeo, Self-awarenes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IC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ICH) Designation Awareness

국문초록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이라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해녀 진입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해녀의 노령화로 인하여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들의 자아인식과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을 살펴보고 제주해녀의 연령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 30일 제주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해녀축제’에 참가한 해녀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주해녀는 연령대별로 자아인식과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전승해야 할 6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해녀로서의 자긍심, 직업 만족도 등의 자아인식과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이 70대 이상 고령 해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식, 자아인식, 제주해녀

* **Corresponding Author** : Choi, Byung-Kil. Dept. of Tourism Manage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South Korea, Tel.: +82-64-754-3136, E-mail: choice21@jejunu.ac.kr

I. 서론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수는 2017년말 기준 1,470만 명에 이른다[1]. 제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제주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특히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어업채집활동을 통한 생업활동적인 면과 기술,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2][3].

제주해녀의 발생 배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제주도의 지역성, 즉 고립된 섬과 유배지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농사가 불가능한 화산회토의 섬사람들의 생계는 당연히 바다로 나가 식량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다. 또한 산과 숲, 내와 못, 높고 낮은 언덕, 나무와 돌, 바다 등 모든 사물에 안경을 의존했고[4], 이는 제주해녀의 작업안전을 비는 해신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주해녀는 간조를 이용하여 별도의 생명장치 없이 호미로 약 2분간 호흡을 멈춘 상황에서 성장한 조개류와 미역 등을 선별 채집하는 물질을 진행한다. 작업의 어려움과 다양한 직업 배경으로 새로운 해녀 진입 인구수는 적고 기존 해녀는 노령화로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녀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채집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녀의 안전과 어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녀의 작업은 공동 작업형태로 진행되고 물때를 맞춰 마을해녀 공동체가 함께 채집, 판매를 거치며 판매수입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된다. 또한 제주해녀의 높은 위험부담의 물질 속성상 협력과 협동이 끈끈한 집단문화를 보유하고 공동체 소속감이 높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5][6].

제주해녀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는 그야말로 세계 유일의 환경, 문화, 농업에 걸친 세계적 자격의 최다 유산 보유지역으로 부상되었고, 자연환경 관광과 유네스코 유산관광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독특한 해녀의 어업기술, 어업활동, 채집해산물은 제주도 관광의 매력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녀는 생활인으로 우리 옆에 있어온 평범한 이웃 할머니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해녀문화의 중요성에 비하여 2016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해녀들의 자아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의 가치는 주관적이며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무형적 가치 및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가치는 장인기술, 종교적 헌신과 신앙심, 민족적 자긍심을 유발하는 의미적 요소가 포함되며 살아있는 무형문화유

산은 시대적 특성에 따라 가치의 내용과 그 중요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고유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식 구조와 세대 간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제주해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은 시대와 내용에 있어 계속 진화를 위한 충돌이 발생하므로 소수의 가치 고집이나 시대적 사상에만 부합하는 보존은 바람직하지 않다[7].

이에 본 연구는 우선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의 자아인식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로 인한 영향 인식을 연령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주해녀문화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제주해녀와 자아인식

제주해녀는 성게, 전복, 소라, 미역, 문어 등의 해산물을 채집하는 잠수어업종사 여성을 지칭하며, 최고 전성기였던 1970년대엔 15,000명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제주해녀의 수는 4,005명 내외이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57%인 2,298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8]. 더구나 40대 이하의 신규해녀(해남 포함) 12명으로 전체 현직 해녀 중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의 자아인식이 연령대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신규 해녀 유입을 위한 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한다.

Philippe Rochat(2003)은 인간의 자아인식(self-awareness)은 탄생부터 약 4-5년간 5단계의 인식구성을 통해 형성되며, 다수의 연구에서 거울반사실험(mirror experiment) 및 포스트잇(Post it)을 통해 아동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이미 자아인식을 구성하고 인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9]. 무지단계(confusion)에서 시작된 자아인식은 차별성을 인식하는 1단계(Differentiation)와 상황을 이해하는 2단계(Situation), 자아를 확립하는 3단계(Identification), 의식의 확립이 이루어지는 4단계(Permanence)를 거쳐 객관적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5단계(Self-consciousness)를 거친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영유아는 부모로부터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도덕성이 형성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게 된다[10]. 다수의 인식관련 연구들이 심리와 정서적 요인에 대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11] 본 연구는 Philippe Rochat가 제시한 5단계 자아인식 발전 단계에 근거하여 해녀들의 자아인식을 확인하고 거친 환경과 열악한 여성의 사회참여 구조 속

에서도 가정에 도움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과 비슷한 입장의 동료들에 대한 강한 애착심, 자아와 타아의 공동의식이 제주해녀들의 자아인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아인식(self-awareness)은 스스로 개인 의식의 객체를 만들고 자신을 향하여 강화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과 같은 행동적 결과나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12]. 청소년의 자아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인식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또 다른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 영역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13][14].

자아는 타아에 의해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 즉 보편적인 면을 승인받는 동시에 타아와 구별되는 자신의 특수성을 승인받음으로써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타인과의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의 자아인식을 해녀로서의 인정, 자긍심, 가족으로 부터의 인정, 직업 만족도, 전통 지식과 문화전수자로서의 자아인식, 전문성 보유 등의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 공동체 의식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물질의 속성상 제주해녀는 협력과 협동 작업정신이 유난히 끈끈한 집단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의리가 탁월하게 높다는 특징이 제주해녀문화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해녀는 물질의 기본상식과 기술을 선배 해녀를 통해 배우며, 특히 생존과 직접 연결된 모든 지식을 선배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제주해녀는 공동체 생활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과 문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주해녀는 현재 102개 마을 어촌계 중심의 공동체에 참여하며 개개인 해녀는 잠수기술, 문화, 공동체 인식 등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소속마을의 어촌계와 해녀공동체에 가입되어야 비로소 해녀로서 경제활동과 채집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해녀공동체가 마을과 주민을 위한 도움, 공동작업 등의 공공의제와 도움방안을 정하면 마을 주민과 그 과제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남성 중심의 품앗이가 제주에서는 여성 중심의 수놓음 문화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해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여성의 구국활동의 훌륭한 예가 되기도 한다.

제주해녀는 간조를 이용, 생명장치 없이 호미 하나로 약 2

분간 호흡을 멈춘 채 물 아래 머무르며 성장을 마친 조개류와 미역 등을 선별 채집한다[15]. 이렇게 채집된 수확물은 마을 해녀 공동체 차원으로 공동 선별 과정을 거치고 어촌계 직판 형태로 판매되어 작업에 참여한 해녀 모두에게 공정한 수입의 분배가 이뤄진다.

또한 해녀의 공동체에 관한 기본적 의식 속에는 동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하루의 일상에 대한 안전을 각자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는 Mill(1884)의 'Direct method of agreement'와 일치하며[16] 본 연구에서는 '우리 마을 해녀는 신규 해녀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우리 마을 해녀는 서로 의지하고 지낸다', '우리 마을 해녀는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항목을 통해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식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며 '세계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17]. 2003년 파리에서 진행된 제32차 유네스코 회의에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이 채택되었다[18].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한 개발 유지, 인류의 창의성 확보, 문화적 다양성 확충을 주요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문화유산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 제도를 널리 알리고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으로 세계적 차원의 보호조약을 채택하였다.

보호조약의 주요 목표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이며 유산 보유 커뮤니티, 그룹, 개인의 가치인정, 무형문화유산의 지역, 국가, 국제단계의 인식을 고취하고 공유하여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과 공조를 유지한다[19].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은 언어적 특성을 지닌 구전 관습과 문화, 공연, 사회적 관습, 종교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가 포함된다[20].

유네스코 보호조약은 유산 등재로 유산의 가치와 의미, 보존의 필요성, 유산의 무한 가치 등을 알리고 또한 미래 세대가 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해당 문화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며 해당 유산이 전 인류적으로 보호되고

전수할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되기까지 유네스코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제주해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 등재 후 해녀로써 자긍심이 상승함’, ‘유네스코 등재로 해녀에 대한 관광객 인식이 더 좋아짐’,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만의 전문성 인정한 것’, ‘유네스코 등재로 제주 관광이 더 홍보됨’ 등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조사일 현재 제주해녀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며, 최종학력, 연령대, 해녀경력, 월 소득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항목과 제주해녀의 자아인식, 공동체인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영향 인식 등에 대한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2. 조사대상과 방법

본 설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 일원에서 2017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주해녀축제’에 참가한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228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28부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Ver. 19(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분산



Figure 1. The 10th JejuHaenyeo World Festival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연령대별 표본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분석으로 Scheffe법을 적용하였다.

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유효표본 총 228부에 대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228명 중 60대 이하는 32%에 해당하는 74명이었고, 60대는 응답자의 28%에 해당하는 64명이었으며, 39.5%에 해당하는 90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무학이 43명(18.2%), 초등학교 졸업 107명(47.2%), 중학교 졸업 57명(24.9%), 고등학교 졸업 17명(7.4%), 대학교 졸업 4명(1.7%)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		n(%)
Age Group	Under 60	74(32.5%)
	60s	64(28.0%)
	Over 70	90(39.5%)
Academic Background	None	43(18.2%)
	Elementary	107(47.2%)
	Middle school	57(24.9%)
	High school	17(7.4%)
	University	4(1.7%)
Monthly Income	Under 500,000 won	79(34.5%)
	500,000 - 1,000,000 won	71(31.0%)
	1,000,000 - 1,500,000 won	22(9.6%)
	1,500,000 - 2,000,000 won	21(9.2%)
	2,000,000 won	33(15.7%)
Total		228(100)

Characteristic		n(%)
Job Experience	Under 10 year	14(6.1%)
	11-15 year	8(3.5%)
	16-20 year	10(4.4%)
	21-25 year	21(9.2%)
	26-30 year	17(7.4%)
	31-35 year	12(5.2%)
	36-40 year	26(11.4%)
	41-45 year	26(11.4%)
	46-50 year	27(11.8%)
	Over 50 year	67(29.4%)
	Total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월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79명으로 전체 34.5%에 이르렀으며, 31%인 71명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였다. 9.6%에 이르는 22명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1명(9.2%)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33명(15.7%)이 2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주해녀로 지낸 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14명(6.1%)이 10년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11년에서 15년이 8명(3.5%), 16년에서 20년은 10명(4.4%), 21년에서 25년은 21명(9.2%), 26년에서 30년 17명(7.4%), 31년에서 35년 12명(5.2%), 36년에서 40년 26명(11.4%), 41년에서 45년 26명(11.4%), 46년에서 50년 27명(11.8%)으로 나타났으며 5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도 6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고찰

1. 제주해녀 연령대별 자아인식 비교

제주해녀의 자아인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60대 이하에서는 제주해녀로써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이 3.43점인데 비해 60대는 4.06점, 70대 이상은 4.29점으로 연령이 높아

질수록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해녀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이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는 4.25점이었으나, 60대 이하에서는 3.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인식점수도 60대 이하가 3.79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4.15점, 70대 이상이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녀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70대 이상에서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4.11점, 60대 이하 3.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해녀는 내게 직업 이상의 의미이다'라는 항목에서는 60대 이하 3.95점, 60대 4.05점, 70대 이상 4.29점으로 통계적으로 세 연령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전승된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에서 4.31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60대에서는 4.08점, 60대 이하에서는 3.59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제주해녀문화 전승에 대한 자아 인식이 낮아지는 나타났다.

제주해녀의 직업적 전문성 보유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4.37점을 나타냈으며 60대에서는 4.11점, 60대 이하에서는 3.6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lf-Awareness by Age Groups

Questions	Age Group	No.	Mean	Standard Deviation	F(p-value)
JejuHaenyeo is respected in Jeju community	Under 60	74	3.43	1.315	12,884*** (.000)
	60s	64	4.06	.906	
	Over 70	90	4.29	1.019	
Proud in Haenyeo job	Under 60	74	3.73	1.193	6,842** (.001)
	60s	64	4.25	.933	
	Over 70	90	4.30	1.022	
Family recognition as JejuHaenyeo	Under 60	74	3.79	1.067	6,554** (.002)
	60s	64	4.15	.972	
	Over 70	90	4.35	.893	
Satisfied with Haenyeo job	Under 60	74	3.78	1.170	4,734* (.010)
	60s	64	4.11	.985	
	Over 70	90	4.28	.953	
Haenyeo title means more than a job	Under 60	74	3.95	1.039	2,716 (.068)
	60s	64	4.03	1.000	
	Over 70	90	4.29	.944	
Haenyeo culture is passed down thru me	Under 60	74	3.59	1.204	9,636*** (.000)
	60s	64	4.08	1.029	
	Over 70	90	4.31	.920	
I am professional and an expert Haenyeo	Under 60	74	3.61	1.312	9,960*** (.000)
	60s	64	4.11	1.002	
	Over 70	90	4.37	.942	

*p<.05, **p<.01, ***p<.001

2. 제주해녀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 비교

제주해녀 공동체 의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Table 3), '우리 마을 해녀는 서로 의지하고 지낸다'라는 항목에서 60대 이하는 4.15점, 60대 4.22점, 70대 이상은 4.46점으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녀는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가장 높은 4.27점을, 60대 이하가 4.38점, 60대 가 4.27점으로 세 집단 모두 유사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리 마을 해녀는 신규 해녀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60대 이하에서 4.0점, 60대 3.98점, 70대 이상 4.28점으로 나타나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연령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제주해녀 연령대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인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 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Table 4), 먼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제주해녀의 자긍심이 더 높아졌다'는 항목에서 70대 이상이 4.35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60대는 4.16점, 60대 이하는 3.93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 등재 이후 제주해녀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 더 좋아졌다'라는 항목에서는 60대 이상이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4.29점으로 60대와 유사하였으나 60대 이하에서는 3.8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wareness on Community by Age Groups

Questions	Age Group	No.	Mean	Standard Deviation	F(p-value)
Haenyeo depend on and support each other in my village	Under 60	74	4.15	1.143	2.303 (.102)
	60s	64	4.22	.899	
	Over 70	90	4.46	.837	
Haenyeo are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issues in my village	Under 60	74	4.38	.902	.460 (.632)
	60s	64	4.27	.913	
	Over 70	90	4.40	.872	
Haenyeo help new Haenyeo's difficulties	Under 60	74	4.00	1.027	2.095 (.126)
	60s	64	3.98	1.076	
	Over 70	90	4.28	1.011	

*p<.05, **p<.01, ***p<.001

Table 4. Awareness on UNESCO ICH Designation by Age Groups

Questions	Age Group	No.	Mean	Standard Deviation	F(p-value)
Higher Haenyeo pride post UNESCO ICH designation	Under 60	74	3.93	.962	4.002* (.020)
	60s	64	4.16	.937	
	Over 70	90	4.35	.906	
Tourist awareness on Haenyeo is more positive post UNESCO ICH designation	Under 60	74	3.82	.984	6.394** (.002)
	60s	64	4.30	.867	
	Over 70	90	4.29	.915	
UNESCO ICH designation acknowledges JejuHaenyeo's expertise	Under 60	74	4.11	.930	3.128* (.046)
	60s	64	4.23	.886	
	Over 70	90	4.44	.809	
UNESCO ICH designation acknowledges the spirit of Haenyeo community	Under 60	74	4.00	.936	5.173** (.006)
	60s	64	4.22	.899	
	Over 70	90	4.44	.800	
UNESCO ICH designation promotes Jeju tourism more positively	Under 60	74	4.15	.917	3.184* (.043)
	60s	64	4.28	.893	
	Over 70	90	4.48	.770	

*p<.05, **p<.01, ***p<.001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4.44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했고 60대가 4.23점, 60대 이하가 4.11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의 공동체 정신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이 4.44점, 60대 4.22점이었으며 60대 이하는 4.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제주 관광이 더 홍보가 된다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4.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가 4.28점, 60대 이하가 4.15점으로 나타났다.

4. 기타 분석

기타 분석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녀가 되라고 추천한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4.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97점이었고, 60대 이하가 3.62점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제주해녀를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녀문화의 번영과 전승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이며 추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이 4.53점, 60대 이하 4.49점, 60대 4.31점으로 전 연령대가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V. 결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배가할 수 있는 더없이 훌륭한 자산이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평균 연령의 고령화로 앞으로 신규 해녀의 유입 없이는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의 주인공인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자아 인식, 공동체 의식,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연령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0대 이하의 제주해녀들은 60대와 70대 이상의 고연령 제주해녀들에 비해 ‘제주해녀로서의 자긍심’,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인식’, ‘제주해녀 직업 만족도’, ‘해녀로서의 전문성 보유 인식’, ‘제주해녀문화 전승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영향 인식도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같은 방법의 해녀 활동이지만 60세

이하에서 70세 이상의 제주해녀에 비해 낮은 자긍심, 낮은 직업 만족도를 보인 원인 중의 하나로 해녀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경제적 수입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65.5%가 월수입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하였듯이 경제적 수입에 있어 다른 직업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안의 경제적 부양 책임의 일부를 담당해야하는 60세 이하의 해녀들과 경제적 부양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과의 삶의 단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향후 심층인터뷰 및 해녀의 인식구성과 인생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2006년 해녀박물관을 개장하였으며, 제주해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2017년 해녀문화유산과를 신설하여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녀의 명맥 유지 및 고령 해녀들의 안전을 위해 70세 이상 현업 해녀에게 10-20만원의 고령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주에서 해녀학교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2018년 2월부터 30만원의 어촌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해녀 수급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주해녀문화를 해외 박람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홍보함으로써 제주해녀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경제적,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제주해녀문화를 전승 발전시켜 나갈 60세 이하의 연령대에 ‘제주해녀’라는 자긍심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인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제주해녀의 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주해녀의 가치 확산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및 제주해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Tourism Association. <http://www.visitjeju.or.kr>
- [2]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ttp://www.ich.UNESCO.org>
- [3] UNESCO ICH application. <http://www.ich.UNESCO.org>
- [4] Lee, H. L.(2017), Spatial Analysis of the Confucian Cultural Landscapes at Jeongeuihyanggyo, Jeju Islan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4): 29-42.
- [5]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ort on Jeju Haenyeo status 2017’. <http://www.mof.go.kr>
- [6] Paik S. B.(2011). Moon Tides-Jeju Island Grannies of the Sea, cover letter introduction.

- [7] Yi, Y. K.(2017) Development of the Values and Assessment Indicators of Traditional Temple Area-Focused on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Pairwise Comparis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4): 14-28.
- [8]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report on Haenyeo status, <http://www.jeju.g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51410021&code=620117#csidxf03cf8e61bd4e0eb83dfd4685d69b05
- [9] Rochat Philippe(2003), Five levels of self-awareness as they unfold early in life, Science Direc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2, 717-731
- [10] Kim, H. G. and Jo, H. Y.(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1-14.
- [11] Samuelson, K. W., Krueger, C. E. and Wilson, C.(2012),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in families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7), 3532-3550.
- [12] Sah, Y. J. and Peng, W.(2015) Effects of visual and linguistic anthropomorphic cues on social perception, self-awareness, and information disclosure in a health websit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392-401.
- [13] Hwnag, J. G., Heo, H. J. and An, H. M.(2013)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Their Self-re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middle school year 1 to year 3, Report of Korea Youth Policy, 1-128.
- [14] Choi, M. H.(2016) The effects of neglectful · abusive rearing styles of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 children :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Report of Korea Youth Policy, 27(2):59-92.
- [15] Paik S. B.(2011), Moon Tides-Jeju Island Grannies of the Sea, p.19.
- [16] Mill, J. S.(1884),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Being a connected view of the principles of evidence and the method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 System of Logic(1:1843), p.454.
- [17] UNESCO Convention(2003),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18] UNESCO Convention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 [19] UNESCO Convention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Article 1, Purpose.
- [20] UNESCO Convention Safegua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003) Article 2, Domain.
- [21] Shackley, M.(1998) Introduction: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Visitor management: Case studies from world heritage sites, Oxford: Betterworth-Heinemann, 1-9.
- [22] Hall, C. M. and Piggin, R.(2003) World Heritage sites: managing the brand. Managing visitor attraction, New directions, 203-219.

원 고 접 수 일: 2018년 1월 31일
 심 사 일: 2018년 2월 26일 (1차)
 : 2018년 3월 8일 (2차)
 계 재 확 정 일: 2018년 3월 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